

2012 하반기 국내외 경제전망

2012.06.26

이 재 준

Korea's Leading Think Tank





C O N T E N T S

- I. 우리 경제 동향
- II. 최근 세계경제 상황
- III. 경제 전망
- IV. 향후 경제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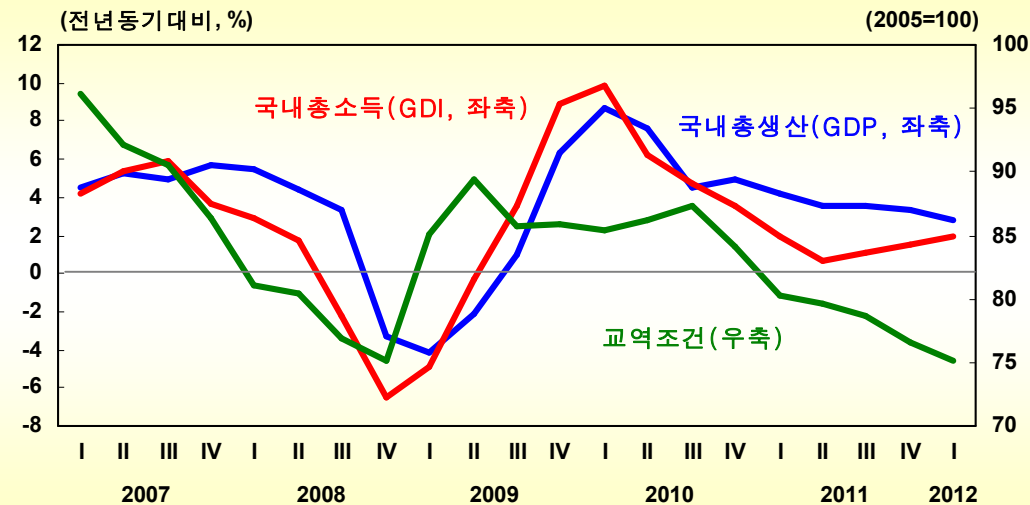
I. 우리 경제 동향

우리 경제의 성장률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기인하여 대내외 수요가 전반적으로 약화되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모습**

- 우리 경제의 GDP 성장률은 작년 1/4분기 4.2%를 기록한 이후 4분기 연속 둔화추세를 지속하며 금년 1/4분기 2.8%를 기록
- 교역조건 악화 및 낮은 임금상승에 따른 소득(실질구매력) 둔화 등에도 기인

국내총생산 및 국내총소득의 성장률



주: 교역조건=(수출단가지수/수입단가지수)*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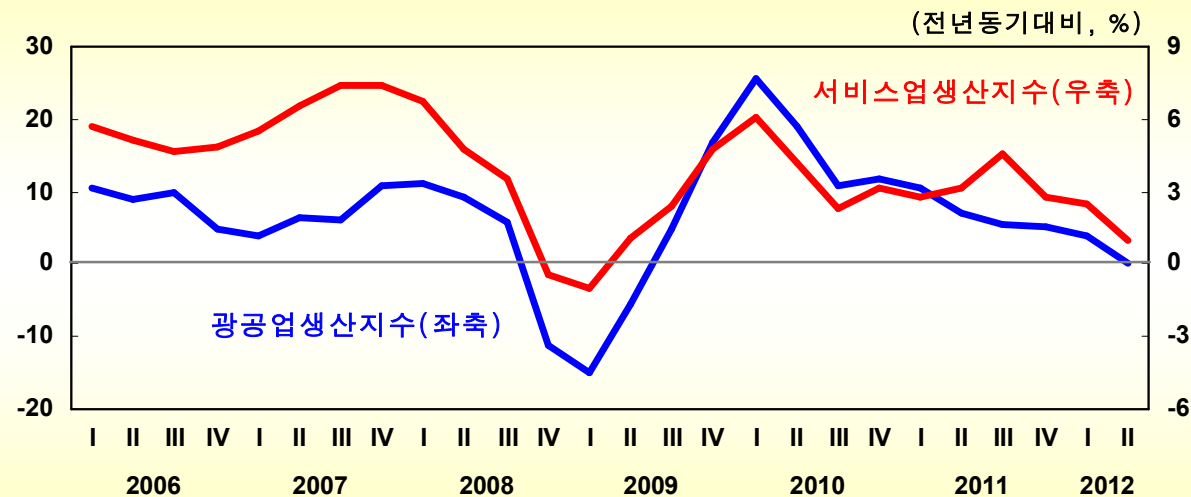
최근 경기 추이-생산(1/2)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생산 증가 폭이 모두 축소되면서
증가세가 완만히 둔화되는 모습

- 금년 1/4분기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자동차와 반도체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 감소하여,
작년 4/4분기(5.0%)보다 하락한 3.8%를 기록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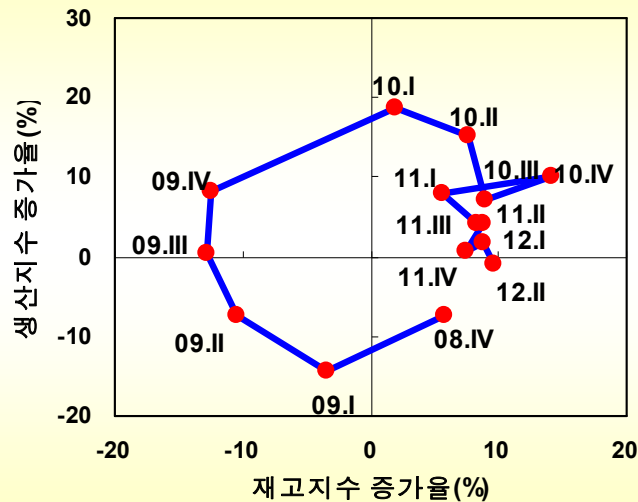


주: 2012년 2/4분기는 4월 수치임.

최근 경기 추이-생산(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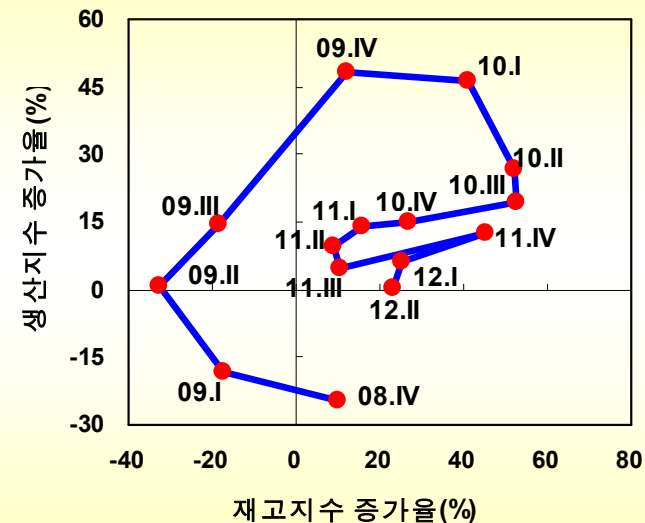
생산 · 재고 순환상 **재고 증가세**는 금년 1/4분기 중 반도체 · IT 산업을 중심으로 축소되었으나, **비교적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생산 증가세 확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

광공업(반도체 · 부품 제외)



주: 2012년 2/4분기는 4월 수치임.

반도체 ·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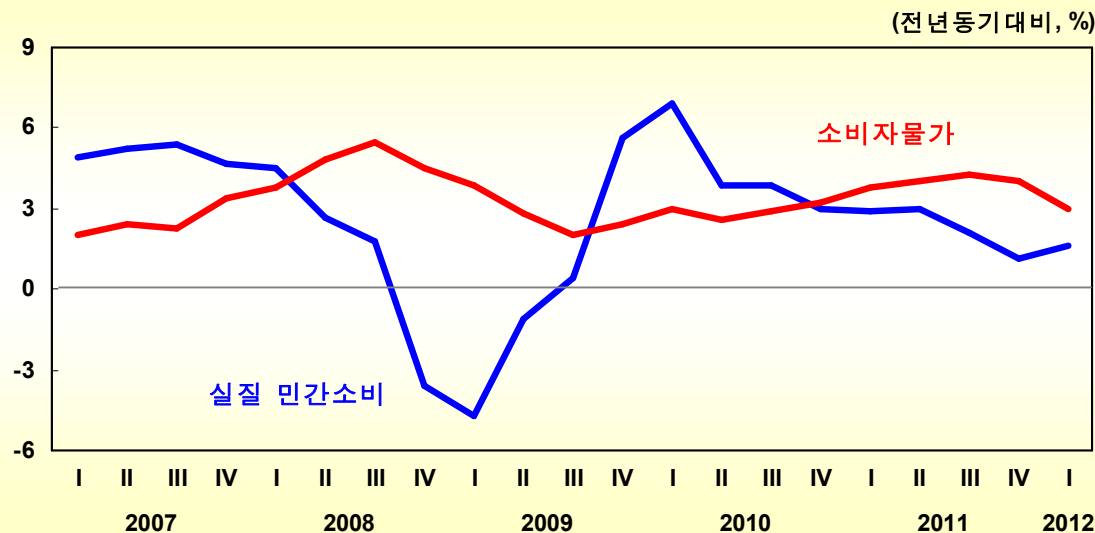
최근 경기 추이-소비

KDI

민간소비는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실질구매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높은 물가수준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나, 금년 1/4분기 중 소폭 개선되는 모습

- 민간소비 증가율은 작년 4/4분기 1.1%로 둔화되었으나, 금년 1/4분기에는 1.6%를 기록하며 소폭 상승

민간소비와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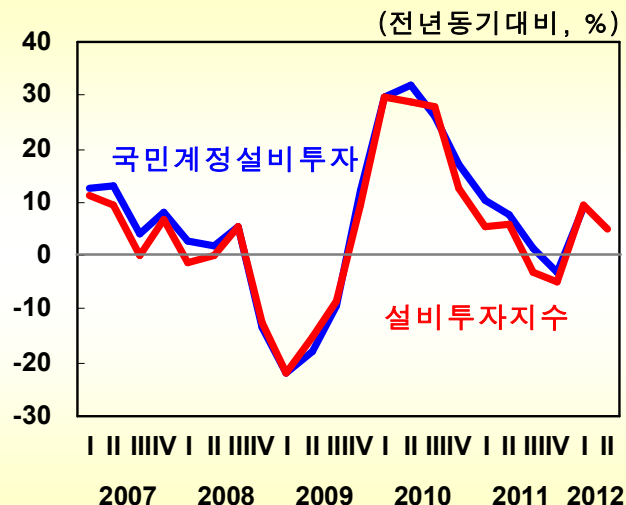
최근 경기 추이-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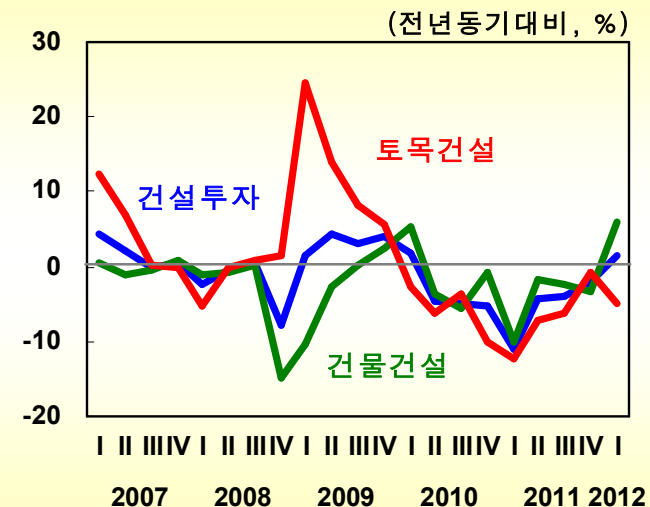
설비투자는 작년의 지속적인 둔화세가 **금년 들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건설투자**는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

- 설비투자 증가율은 작년 초 이후 감소하여 작년 4/4분기 -3.3%를 기록하였으나, 금년 1/4분기 중 8.6%로 상승
- 건설투자는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년 1/4분기 중 감소세는 다소 완만해짐.

국민계정 설비투자와 설비투자지수



건설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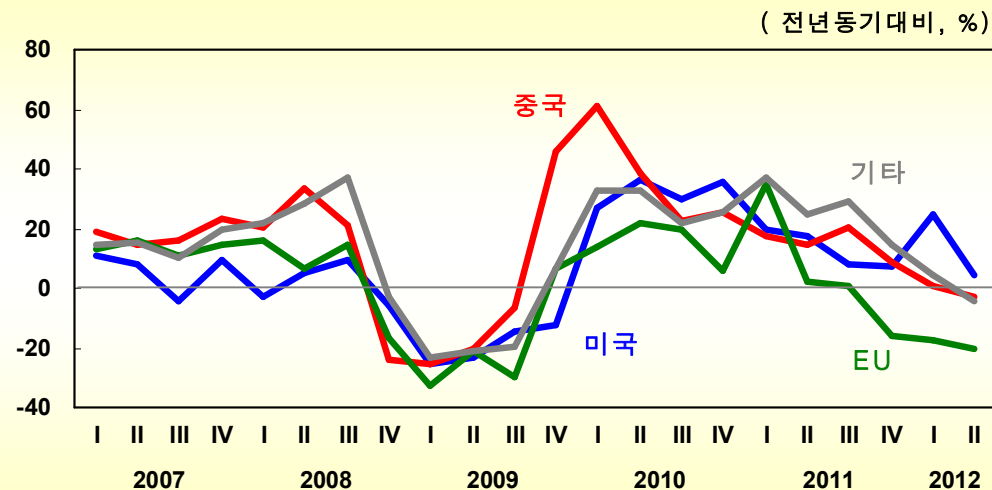


최근 경기 추이-수출

수출은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가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

- 최근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유럽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으로의 수출은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

지역별 수출(금액)



주: 2012년 2/4분기는 4월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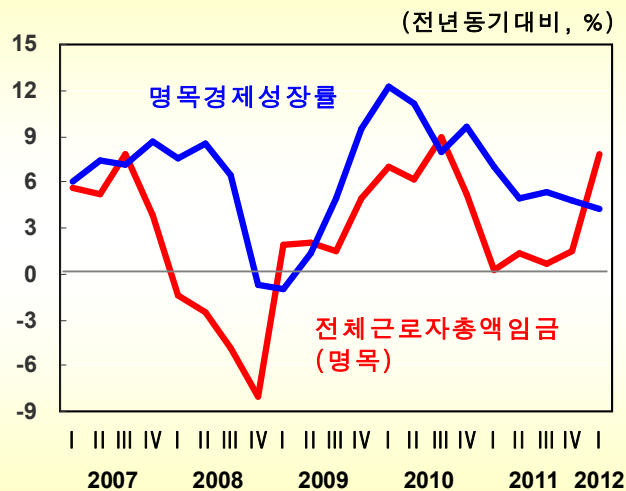
최근 경기 추이-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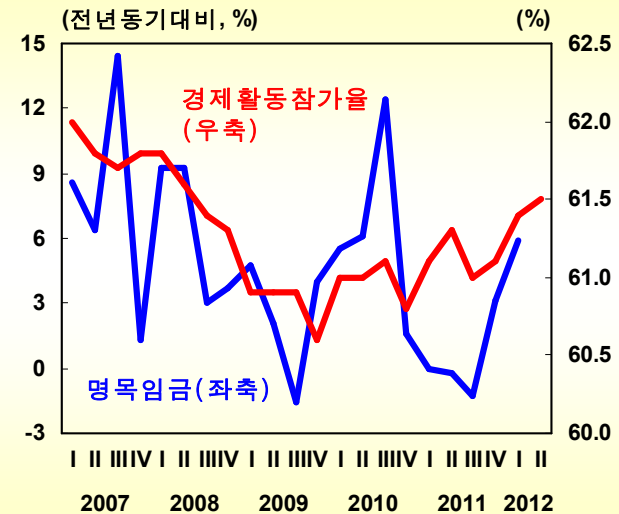
노동시장은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양호한 고용 여건이 지속되는 모습

- 한편, 금년 1/4분기에는 근로소득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며 임금상승률이 명목 경제성장률을 상회

명목임금상승률과 명목경제성장률



경제활동참가율과 시간당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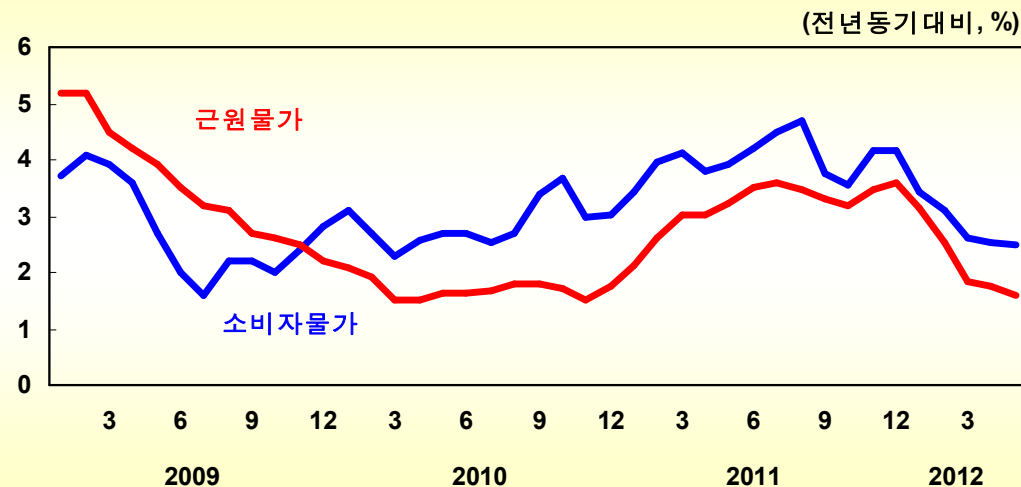
주: 2012년 2/4분기는 4~5월 수치임.

물가

소비자물가는 공업제품 및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둔화되어 안정**되어가는 모습

- 최근 소비자물가는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완만해지는 가운데, 최근 육아비 보조정책 실시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
- 근원물가지수 상승률도 작년 12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 1.6%를 기록

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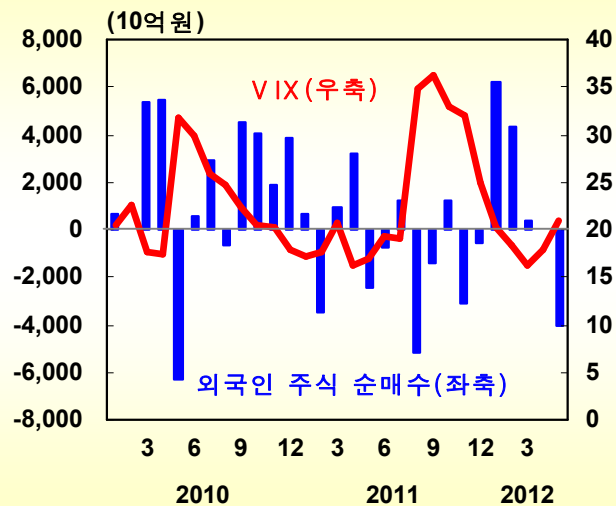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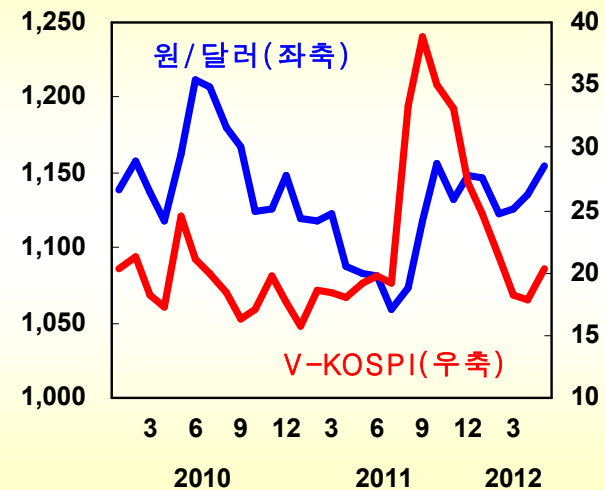
작년 하반기 유럽재정위기 심화의 여파로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금년 들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

- 한편, 최근에는 유럽 재정위기 등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로 주가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

VIX와 외국인 주식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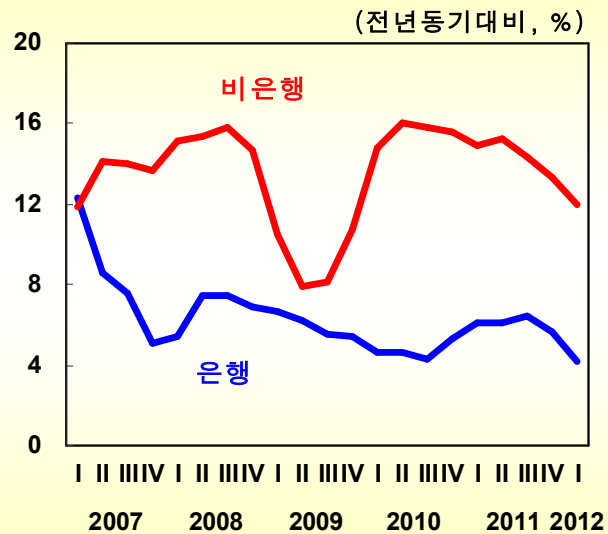
원/달러 환율과 V-KO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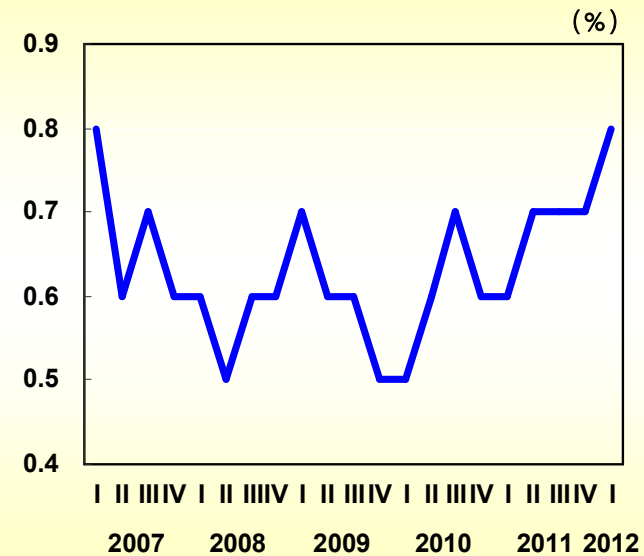
가계부채

가계대출은 작년 하반기부터 은행 및 비은행기관 모두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연체율은 최근 상승

가계대출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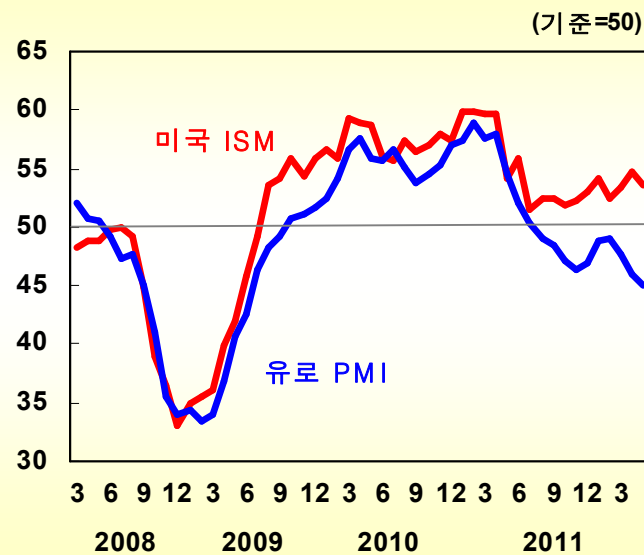


II. 최근 세계경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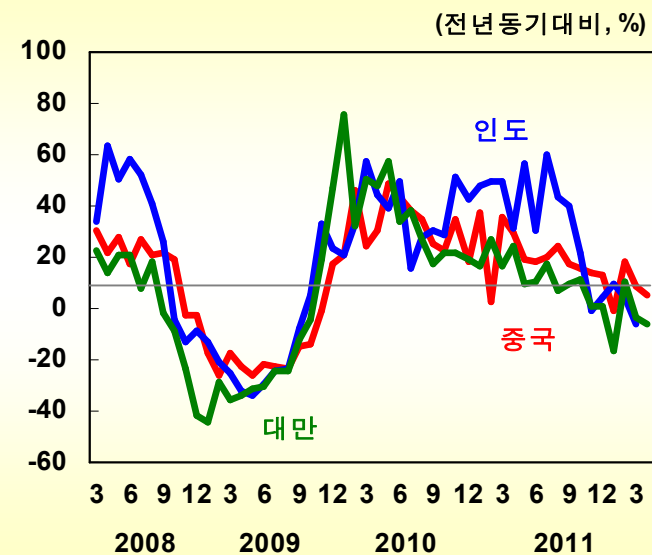
세계경제-회복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 등 **하방위험은 확대**되는 모습

주요 선진국의 제조업심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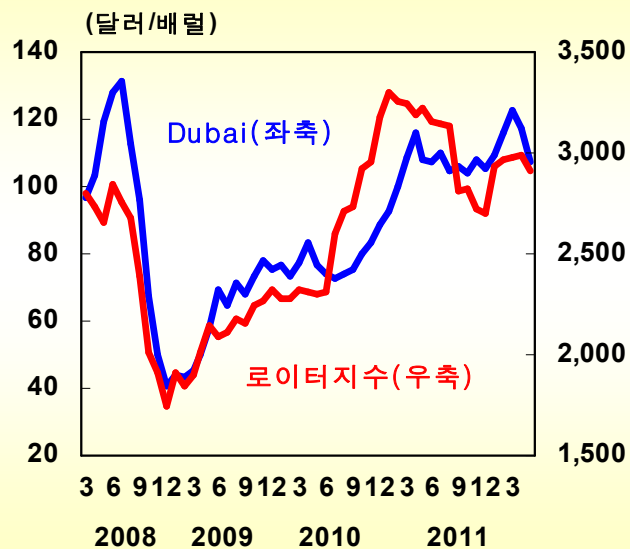
주요 신흥시장국의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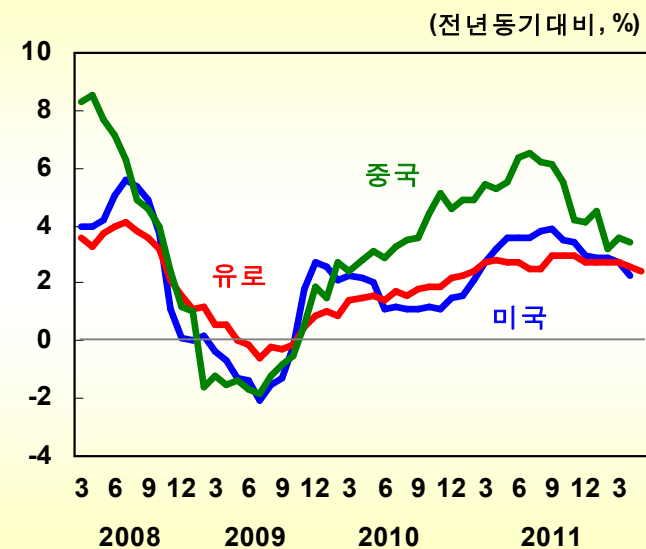
세계경제-물가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요 원자재가격이 비교적 크게 하락한 가운데, 각국의 물가상승세도 둔화되는 모습

유가 및 원자재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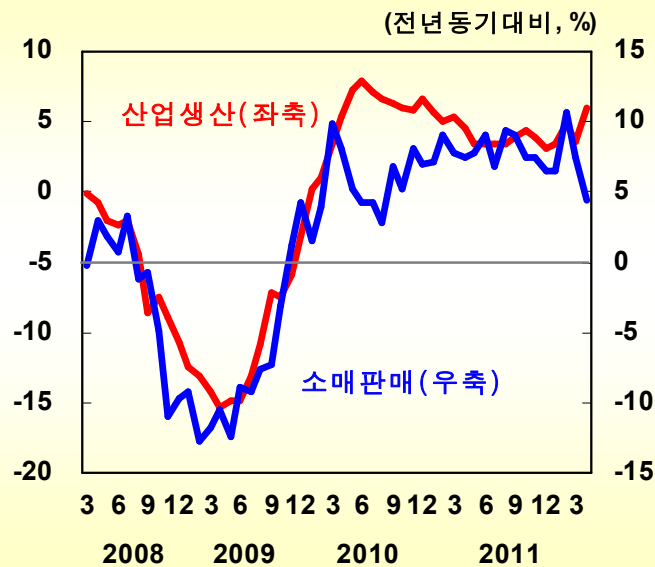
주요국의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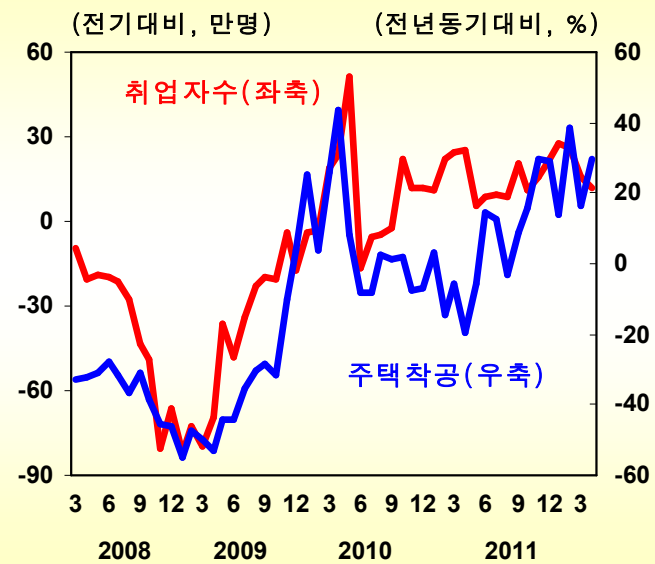
미국경제

미국경제는 고용부문이 예상보다 다소 부진하게 나타나며 경기 회복세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의 개선 추세는 유지

미국의 생산과 소매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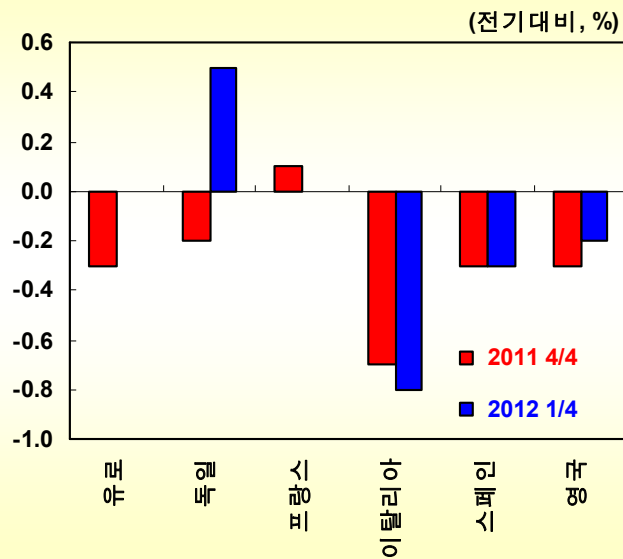
미국의 취업자 수와 주택착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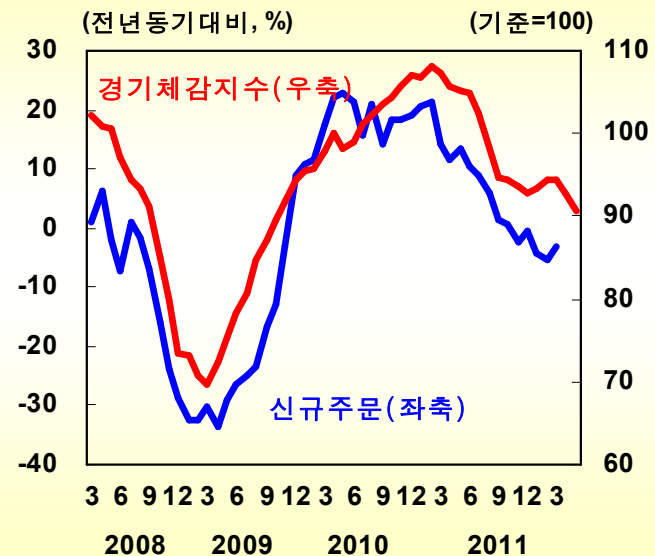
유로경제

유로지역은 금년 1/4분기에도 **실물경기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주요 심리지표도 악화**

유로지역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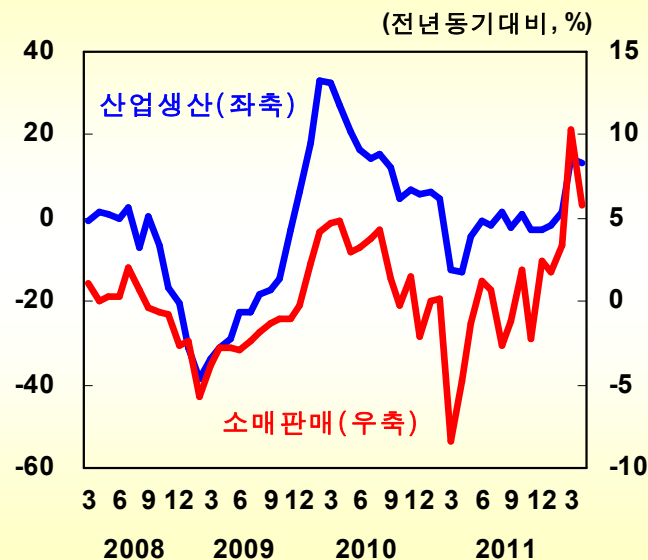
유로지역의 신규주문과 경기체감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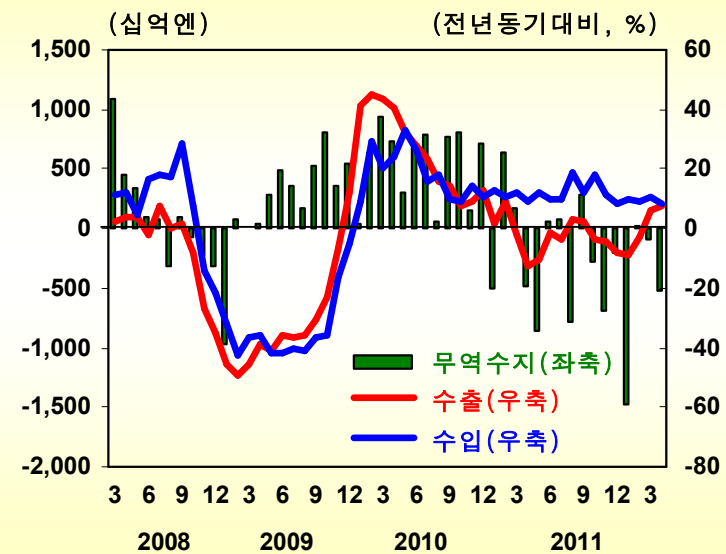
일본경제

일본경제는 소비가 전월에 비해 둔화되었으나, 수출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는 등 전반적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세 유지

일본의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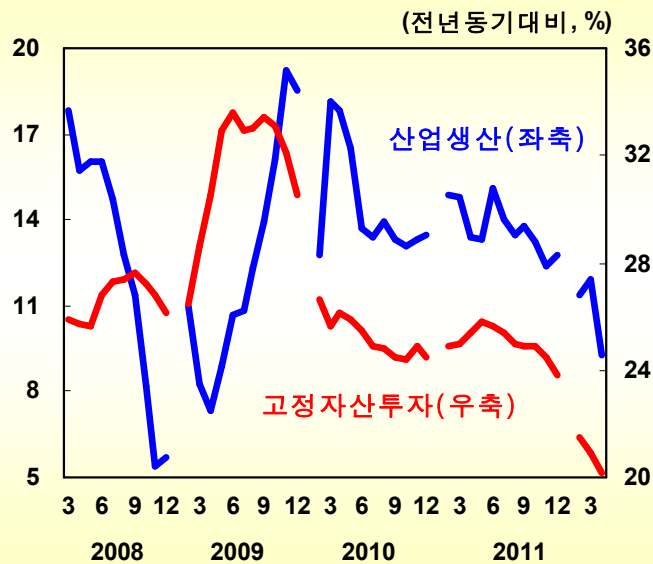
일본의 수출입과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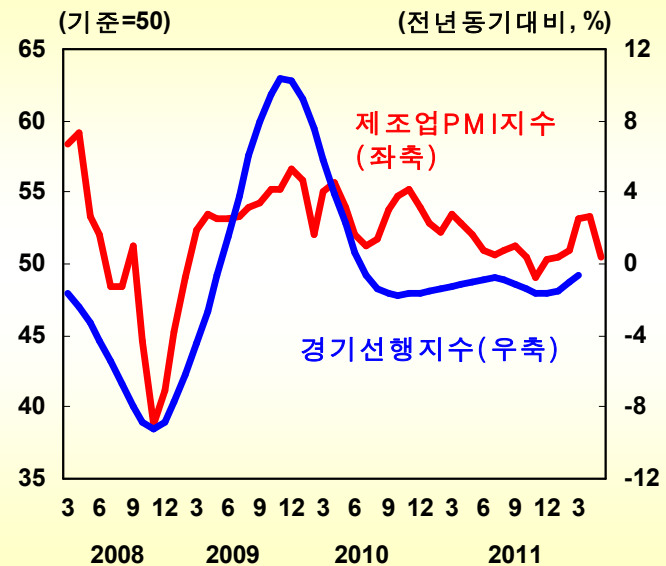
중국경제

중국경제는 해외 수요 위축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 등 주요 내수지표들의 증가세도 점차 둔화되는 모습

중국의 산업생산 및 고정자산투자



중국의 제조업 PMI와 경기선행지수



참고: 중국 내부요인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1/2)



내부 충격요인으로 인한 중국 성장률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

- 우리나라의 높은 대중국 수출 비중을 근거로 부동산가격 급락 등에 따른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내부 충격요인으로 인한 중국 성장률 변동이 우리 경제의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 이는 중국의 내수보다는 중국의 수출과 관련이 높은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구조에 기인

무역형태별 대중국 수출 비중

(%)

	미국		EU		일본		한국	
	2005	2010	2005	2010	2005	2010	2005	2010
일반무역	56.4	65.4	62.5	77.0	35.6	51.8	30.0	32.1
가공무역 · 보세가공	43.4	34.4	37.4	23.0	64.0	48.2	70.0	67.9

주 : 표에 제시된 수치는 외투기업과 국유 및 집체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출실적을 모수로 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해관총서, 이한규 · 이시욱의 “국제금융위기와 우리나라 수출구조” 중 <표 3-8>과 <표 3-9>의 일부를 재정리함.

참고: 중국 내부요인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2/2)

향후 중국의 성장전략이 수출 중심에서 내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내수 연관성이 높은 방향으로 변화하여 중국 내부 경기여건 변화에 대한 우리 경제의 민감성도 확대될 가능성

- 최근 중국의 양회(兩會)는 내수 확대 등 성장전략의 전환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에서 내수의 역할이 점증할 것으로 예상
- 내수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중국의 성장전략이 전환될 경우, 우리나라의 기업도 중국의 내수 확대를 겨냥한 내수 관련 수출 비중을 높여, 대중국 수출구조의 중국 내수 연관성이 확대될 수 있음.
-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구조의 중국 내수 연관성이 확대될 경우, 중국 내부요인으로 인한 중국 경기여건 변화가 무역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될 수 있음.

국제금융시장

유럽 재정위기의 심화 가능성이 재부각되면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

- 주요 선진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재정위기 국가들의 CDS 프리미엄과 VIX 지수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지표들도 크게 상승

미국의 국채 수익률 및 VIX 지수



주요국의 CDS 프리미엄



세계경제 전망(1/2)



세계경제는 일부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 경기개선의 영향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최근 IMF는 2012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기존(3.3%)보다 소폭 상향된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IMF의 2012/2013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수정 추이

(%)

전망기간	전망시점	World	미 국	유 로	일 본	중 국	NIEs ¹⁾	한 국
2012년	2012년 1월	3.3	1.8	-0.5	1.7	8.2	3.3	3.5
	2012년 4월	3.5	2.1	-0.3	2.0	8.2	3.4	3.5
2013년	2012년 1월	3.9	2.2	0.8	1.6	8.8	4.1	
	2012년 4월	4.1	2.4	0.9	1.7	8.8	4.2	4.0

주 : 1) Newly Industrialized Asian Economies: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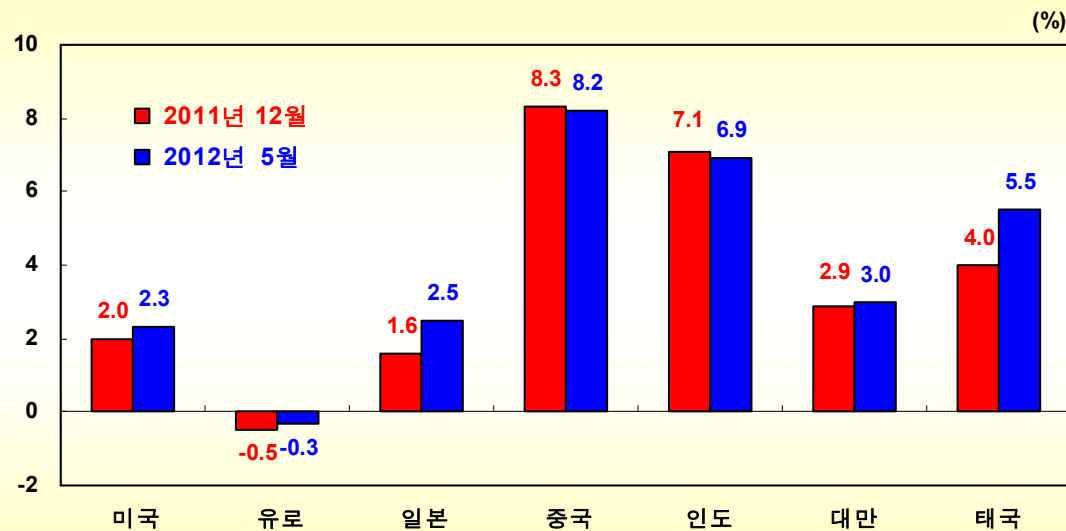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January · April 2012 ;

IMF, *Global Economic Prospects and Policy Changes*, January 2012.

세계경제 전망(2/2)

최근 주요 투자은행들도 유로지역 실물경기의 부진 및 유가 상승 등 하방위험이 높은 상황이지만, 일부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을 반영하여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

주요 투자은행의 2012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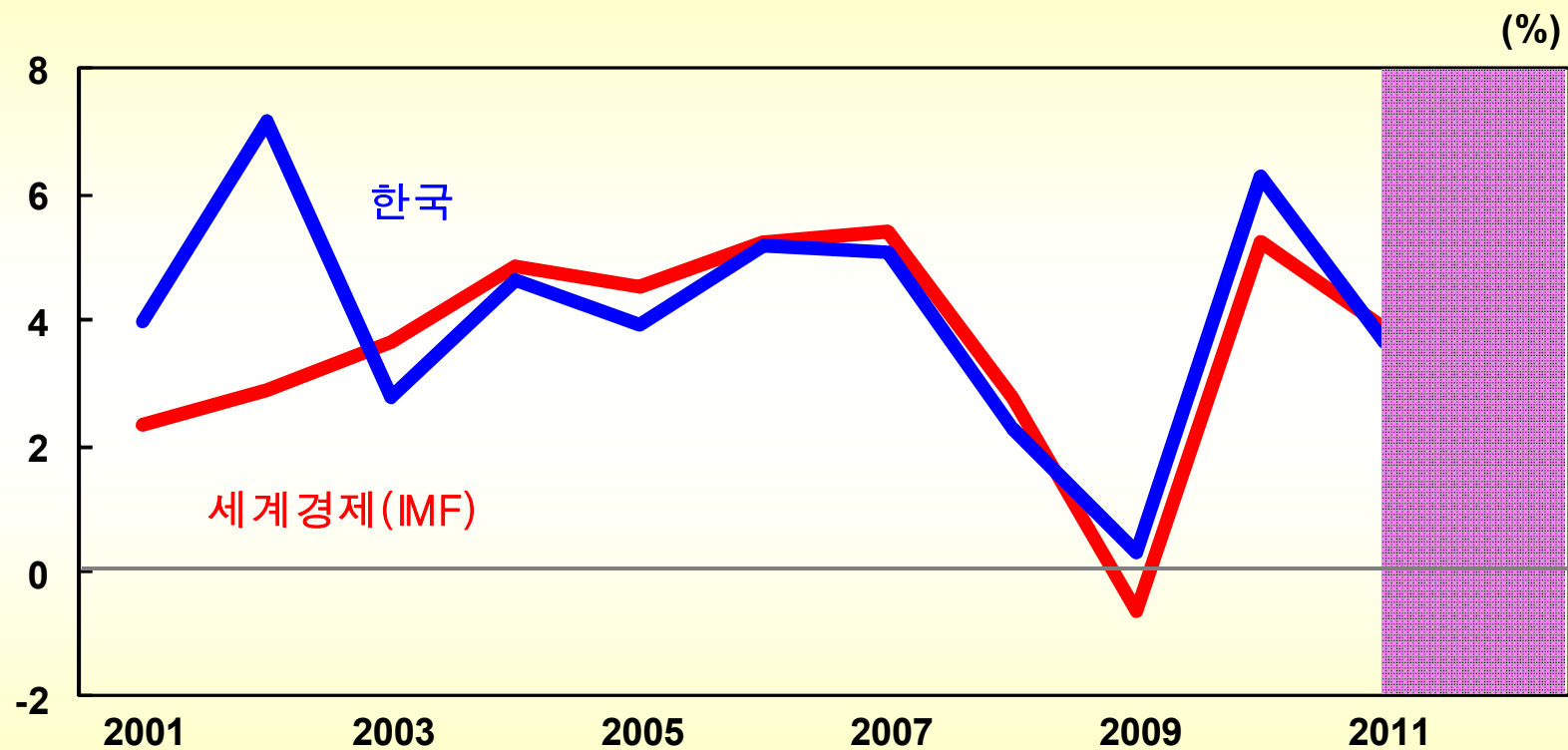


주: 주요 투자은행의 평균값임.

참고: 우리나라와 세계경제성장률

K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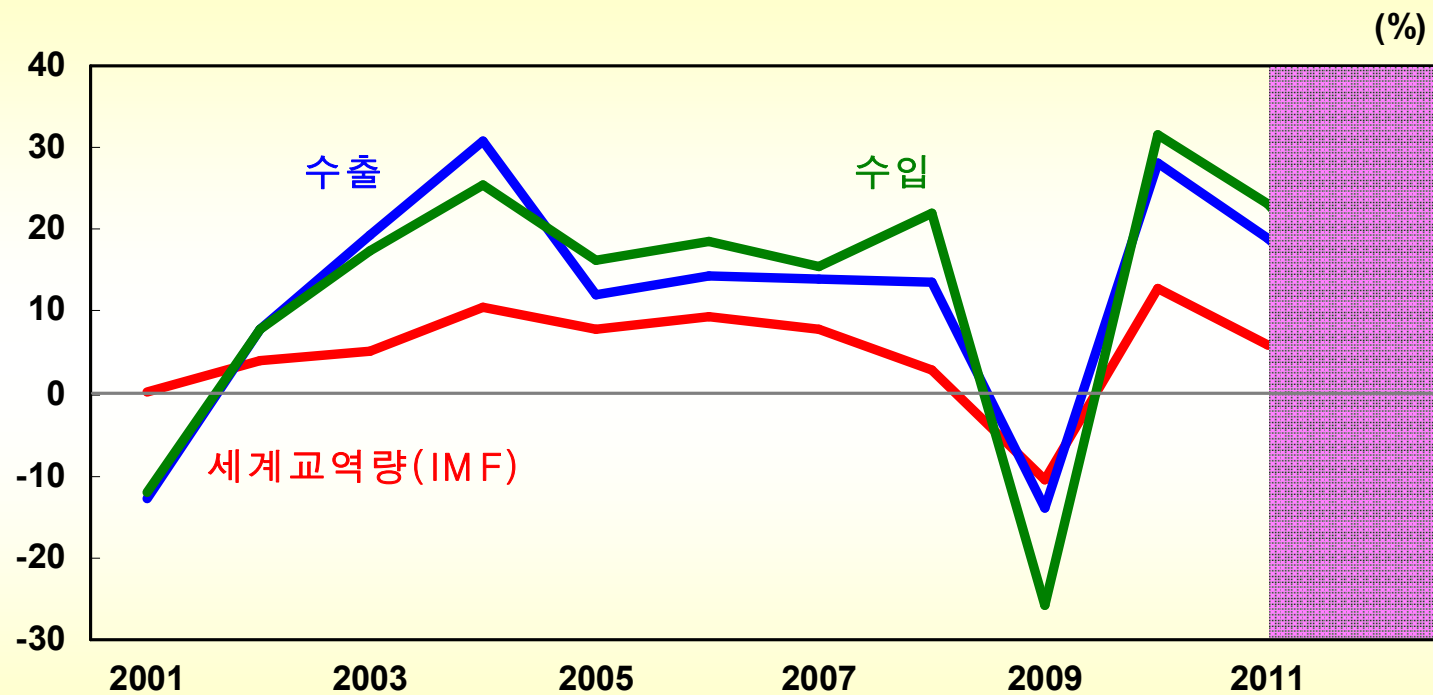
우리나라와 세계경제성장률



주: 2012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KDI의 전망치.

참고: 우리나라 수출입과 세계교역량

우리나라 수출입과 세계교역량



주: 2012년 한국의 수출입 증가율은 KDI의 전망치.



III. 경제 전망

KDI 전망의 주요 전제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2012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2013년에는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제

- IMF는 미국 등 선진국 경기가 개선되고 개도국의 성장세가 비교적 견실하게 유지되면서, 2012년과 2013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각각 3.5%와 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원유도입단가는 2012년에 전년(배럴당 105달러)대비 약 10% 상승한 배럴당 115달러 내외를 기록한 후, 2013년에는 하향 안정화되며 배럴당 110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제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차 축소되면서 2012년 하반기부터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제

- 원화가치는 2012년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3년에는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5% 내외 상승할 것으로 전망

KDI의 우리 경제 전망



2012~13년 거시 경제의 모습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2011	2012					2013
	연간 ¹⁾	1/4 ¹⁾	2/4	3/4	4/4	연간	연간
국내총생산 (계절조정 전기대비)	3.6	2.8 (0.9)	3.3 (1.0)	3.5 (1.2)	4.5 (1.3)	3.6	4.1
민간소비	2.3	1.6	1.8	2.8	4.6	2.7	4.0
설비투자	3.7	8.6	4.4	7.2	12.1	8.1	6.2
건설투자	-5.0	1.5	2.4	2.3	5.2	3.1	4.4
상품수출(물량)	10.5	4.0	5.2	6.0	12.2	7.1	10.7
상품수입(물량)	8.7	4.6	2.4	4.6	10.3	5.5	10.2
경상수지	265	26	51	44	62	183	122
상품수지 (수출증가율)	310 (19.7)	26 (5.4)	81 (4.9)	70 (5.7)	92 (11.9)	269 (7.0)	242 (7.2)
(수입증가율)	(23.8)	(8.3)	(4.9)	(6.2)	(13.6)	(8.2)	(8.1)
서비스 본원·이전소득수지	-44	-1	-29	-26	-30	-86	-120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4.0 (3.1)	3.0 (2.5)	2.5 (1.8)	2.4 (1.8)	2.6 (2.1)	2.6 (2.0)	2.8 (2.5)
실업률 (계절조정)	3.4	3.8 (3.4)	3.4 (3.4)	3.2 (3.3)	3.1 (3.3)	3.4	3.3

주: 1) 잠정치.

2012~13년 국내경제 전망(1/2)

2012년 우리 경제는 전년과 유사한 3.6%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13년에는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세가 확대되며 4.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민간소비**는 고용여건 개선, 교역조건 안정 및 원화가치 상승 등에 따른 실질구매력 개선을 바탕으로 증가세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는 2011년 하반기의 부진에서 회복되며,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6~8%대의 양호한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건설투자**는 건축부문의 완만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극심한 부진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
- **상품수출**(물량 기준)은 2012년 세계경제의 성장세 약화로 증가세가 둔화되며 7.1%의 증가율을 기록한 후, 2013년에는 세계경제 성장세 회복에 힘입어 10.7%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상품수입**(물량 기준)은 2012년 수출 증가세 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축소의 영향으로 증가 폭이 둔화되며 5.5%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2013년에는 내수 및 수출 증가세 확대에 힘입어 10.2%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2012~13년 국내경제 전망(2/2)



경상수지는 내수 증가 및 원화가치 상승 등을 반영하여 흑자규모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

- 내수 증가세 확대 및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은 축소되고 서비스수지 적자폭은 확대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점차 축소되어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83억달러 및 122억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소비자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

- 201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둔화 및 보육료 지원 등의 정책효과 등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2.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3년에는 성장세가 확대됨에 따라 2.8%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실업률은 고용 증가세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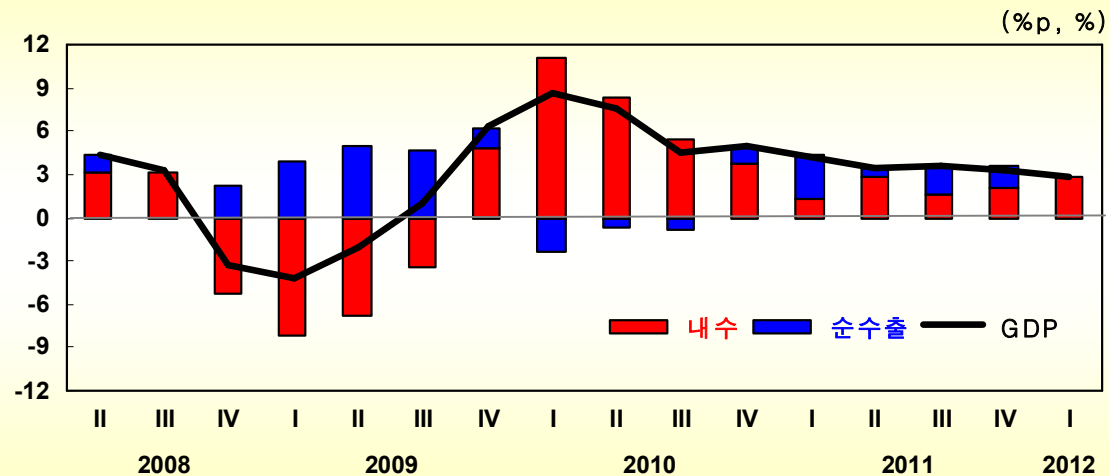
- 취업자 수는 연평균 30만명을 소폭 상회하는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순수출과 내수

우리 경제는 대외수요 약화로 수출둔화가 예상되나, 대내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내수부문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

- 수출 증가세가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둔화되면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
- 반면, 물가안정, 임금상승 및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내수부문의 증가세는 전년에 비해 소폭 확대될 것으로 보임.

내수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전망의 위협요인

**유럽 재정위기의 지속 및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 가능성 등의 불안요인은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

- 유럽 재정위기의 해결방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유럽지역의 경기침체가 심화되어 세계경제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
- 한편, 유럽 재정위기가 유동성 공급 등의 조치로 완화되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경제의 개선 추세가 견실해지는 경우,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예상보다 가속화될 가능성
-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원유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유가 및 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세계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
- 최근의 부실 저축은행 문제로 인한 금융불안이 지속되면서 신용공급이 위축될 경우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내수를 제약할 가능성

참고: 요인별 유가 상승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동일한 유가 상승이더라도 수요 확대에 기인하는 경우보다 **공급 감소에 기인한 경우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유가 상승이 공급 감소에서 기인한 경우에는 국내 GDP를 장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반면, 세계경제 호황 등의 수요 확대에 기인한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국내 GDP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에 의한 유가 상승은 모두 물가상승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그러나 공급 충격의 영향이 1·2차 오일쇼크 이후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규모의 **원유공급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사료

- 과거에 비해 원유 공급 충격의 영향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한 공급 감소가 오일쇼크에 상응하는 규모의 유가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
- 한편, 향후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원유수요의 증가를 통해 유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으나 세계경제 개선의 긍정적 효과가 유가 상승의 부정적 효과를 상회하여, 전체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IV. 향후 경제정책 방향

정책의 기본방향

향후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에 따른 둔화요인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나, **거시경제정책의 기조를 전환할 필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작년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으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견실한 회복세가 예상
- 금번 유럽 재정위기로부터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재부각되었다는 점에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우선 순위를 두는 현재의 재정정책 기본방향은 바람직
- 최근 부실 저축은행 문제가 금융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안전망을 점검하는 한편, 저축은행 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필요
- 세계경제는 금년 하반기 이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경제정책의 방향은 위기관리보다는 안정적 성장여건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출 필요

재정건전성 확보(1/2)

재정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둔 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는 가운데, 향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

- 재정수지의 점진적인 개선을 통한 균형재정 회복으로 향후 재정부담 증가에 대비하고자 하는 재정운용 방향은 바람직
 - 최근의 경기둔화가 실물경기 급락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재정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둔 현재의 재정정책 기조를 전환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
-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세수여건 악화와 복지지출 압력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
 - 재정수입 측면에서는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산상의 재정수입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며,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다수의 총선 공약이 정부정책으로 반영되는 경우 재정 지출 규모가 당초 계획치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

재정건전성 확보(2/2)

향후에는 조세지출제도 정비 등을 통한 **세원 확대**와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재정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

- 비과세 · 감면의 전면적인 재평가와 세정 강화 등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되, 세외수입은 시장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
 - 금년 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90여 개의 비과세 · 감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조세지출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통제할 필요(참고자료)
- 재정지출은 성과미흡사업에 대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입법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한 사전적 검증과정을 강화할 필요
 - 국회법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의원입법 시 예결위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국회규칙이 부재하여 실행되고 있지 않은바, 관련 규칙을 제정할 필요
- 더불어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부채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 · 감독 체계 강화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잠재적 재정위험을 최소화
 - 주요 공공기관이 제출하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목표 달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관리계획 제출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도 확대할 필요

참고: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방안

조세지출범위 확립 및 정보공개 확대

- 신설 혹은 폐지(일몰 종료)와 관계없는 항목 조정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가 연속성과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조세지출 항목의 포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용할 필요
- 조세지출 항목의 변동내역, 전체 항목에 대한 정비계획, 추가 항목 신설계획 등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

관련 재정규율 강화 및 평가·환류체계 구축

- 조세지출 규모, 사전 및 사후 관리와 관련된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
- 조세지출에 대한 적절한 정비원칙을 수립하는 한편,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엄밀한 평가 및 환류 체계를 마련할 필요

물가상승 기대 안정



금리를 당분간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경제주체들의 **물가상승 기대를 안정**시킬 필요

- 물가 등 국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며 불안요인에 대응할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재 금리는 통상적인 수준보다 다소 낮은 상황이나, 최근의 경기 부진과 물가안정세를 감안하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경제주체들의 물가상승 기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중장기 물가안정에 대한 정책의지를 재확인하여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
 -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기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물가상승률 하락이 경기둔화요인 외에 일부 사회정책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

저축은행 구조개혁

저축은행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업법 개정, 금융감독제도 및 예금보험제도 개편 등 **과감한 구조개혁을 실시**할 필요

- 2011년 이후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이 표면화됨에 따라 저축은행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요청됨.
- 저축은행발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함.
 - 고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운용을 제한하고 현행 위험 가중 자기자본규제에서 레버리지(단순자기자본비율) 중심의 규제로 전환함으로써 저축은행의 규제차익을 이용한 위험추구행위를 제어할 필요
- 기존의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최소 비용의 원칙에 따른 구조조정을 엄격하게 실시하여 국민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부실 저축은행의 경우 과감하게 자산부채매각방식(P&A)의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정리비용을 최소화

중소기업 구조조정



중소기업의 부실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계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용경색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실을 막기 위하여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규모가 확대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부실위험은 지속적으로 증가
 - 소규모 한계기업의 비중은 2006년부터 증가하여 2011년 말 현재 30%를 넘었으며, 이 중 25% 이상이 완전자본잠식 상태
- 따라서 중소기업의 신용위험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약칭 채권은행협약)”을 개선하고 한계기업에 선별적으로 구조조정할 필요
 - 채권은행협약 중 세부 평가 시 정량적 및 정성적인 지표를 모두 반영하여 부실징후기업을 판단하고, 평가 주기를 단축하여 중소기업부문의 부실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필요
 - 정기평가와 수시평가의 기준이 되는 채권액을 하향 조정하여 기업신용위험 평가대상 중소기업 수를 확대할 필요

근로시간 제도 개선

노사 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장시간 근로 개선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시기

- 향후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해 광범위한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축소하고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하는 제도개선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
 - 최근 법정 근로시간이 사업장 규모별로 점차 단축되었으나, 여전히 OECD 국가에 비해 장시간 근로가 지속
- 제도개선과 더불어 노사 간의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질 경우, 소수가 장시간 일하는 구조에서 다수가 적정 시간 일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 근로시간 관련 제도의 개선은 포괄임금제의 개선, 임금보존의 문제 등 노사 간 합의해야 하는 쟁점이 있으므로, 정부의 주도보다는 노사 간의 타협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



감 사 합 니 다.